



진성 스님(마이산 탐사 주지)
돌담에 쌓은 소원 동진
세상의 빛이 돼 이웃에게
16·17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용감하게 마음 먹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 하며
항상 깨끗하게 행동 하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내선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8월 19일) · 주간

제1064호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만공·의친왕, 3.1운동 재추진”

이석 황손, 20일 제7회 만공선사 학술대회서 주장

“만공 스님은 아버님인 의친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수덕사는 제2차 3.1운동의 비밀기지였다.”

일제강점기 만공 스님과 의친왕이 독립정신으로 의기투합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덕사에서 2차 3.1운동을 기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종의 증손자이자 의친왕의 아들로 현재 대한황실 후손을 대표하는 이석 황손에게서 나온 발언이다.

경허만공선양회(회장 윤산)가 9월 20일 예산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개최한 제7회 만공선사 학술대회에서 황실문화재단 총재 이석 황손은 “만공 스님은 항일전쟁과 연계된 비밀결사 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석 황손은 “3.1독립선언서를 33인이 모여 읽은 태화관은 사동궁의 옆집으로 아버님인 의왕이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 만난 곳”이라며 “고종의 독살 이후 시신에서 이를 목도한 순종과 의왕은 공조적이 붕괴된 비참한 상황에서 종교조직에 의지했다. 그 일환으로 고종 사후 순병희 선생을 필두로 결사된 제 3.1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석 황손은 순병희 선생이 3.1운동 이후 탄압으로 작고하자 의친왕이 만공 스님을 중심으로 제2차 3.1운동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친왕은 수덕사를 자주 방문했으며 만공 스님은 의친왕과 의기투합했다. 당시 선물로 받은 것이 왕실에 전해지면 고려 공민왕의 거

문고로 이것은 현재 수덕사 박물관서 보관하고 있다.

이석 황손은 “두 분은 너무나 뜻이 맞았다.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술자리를 빙자해 수덕사를 찾았다. 의친왕의 ‘만호’라는 별명도 만공 스님이 지어 주셨다. 그래서 아버님의 유품에는 ‘만호’라는 호가 써 있다”고 말했다.

이석 황손은 “아버님은 수덕사를 수시로 드나들고 두 분은 제2차 3.1운동을 기획했다”며 “만공 스님을 비롯한 수덕사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으며 이런 사실이 일본 측에

의친왕과 긴밀한 관계 유지

“수덕사, 2차 3.1운동 비밀기지”
독립자금 전달, 항일운동 지원

발각돼 의친왕은 서울로 강제압송을 당해 가택연금에 됐다. 만공 스님은 한탄 속에 수덕사에서 정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석 황손은 “이런 사실은 일제에 의해 언론 통제를 당해 비밀화 됐다. 알려지면 일제에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의친왕이 일제로부터 가택연금되는 계기였다. 굴욕적으로 작위를 내렸던 일제는 순종하는 저의 첫째 형님에게 작위를 이어받게 하고 이후 아버님인 의친왕을 술주정꾼으로 내모는 작업



이석 황실문화재단 총재(사진 가운데)가 의친왕과 만공 스님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을 했다”고 말했다.

“만공 스님, 독립자금 자주 전달”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세미나에 앞서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에게도 독립자금을 자주 전달했다고 말했다.

설정 스님은 먼저 만해 스님의 상좌인 춘성 스님에게 들은 말을 전했다. 설정 스님은 “만공 스님은 독립에 대한 의기가 맞닿아 의친왕과도 깊은 교유를 나눴다. 또한 의친왕이 수덕사에 자주왔다는 말을 어려서도 들었다”고 했다.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어려서 만해 스님의 상좌인 춘성 스님으로부터 들은 만공 스님과 만해 스님의 교유관계를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료로 수연 스님의 증언도 공개됐다.

스님은 이어 “만공 스님은 지역 출신인 김좌진 장군, 만해 스님과도 교유를 나눴다. 특히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을 만나 자주 독립자금을 전해줬다고 들었다”며 “특히 만공 스님은 광복이 필연적으로 됨과 동시에 광복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주

문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했다는 또 다른 증언도 자료로 공개됐다. 이 증언은 만공 스님을 시봉한 스님 중 유일한 생존자인 수연 스님(90)이 1942년 전 덕송총림 방장 원담 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수연 스님은 자료를 통해 “만공 스님은 1942년 8월 초순 간월암에서 천일기도를 하셨는데 당시 시봉했던 원담 스님으로부터 ‘노스님이 실제 숨어있는 독립운동가’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원담 스님은 만공 스님이 한양에 갈 때마다 따라가 만공 스님이 총독부 회의 참석 날과 선학원 고승대회 참석 날 밤 등 삼청의 공원에서 만해 스님을 만나 독립자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다고 했다”고 했다.

경허만공선양회 회장 윤산 스님은 “만공 스님의 천일기도는 수행에 근간하는 봉암사 결사의 기초가 됐다. 조선총독에게 일갈한 것은 독립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만공 스님의 유공자 지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수덕사=노덕현 기자

과거사 정리위한 ‘사부대중위’ 구성

조계종 총무원, 22일 위촉식… 종령 기구로 출범

종단 분규와 1994년 개혁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종단 개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22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이하 사부대중위원회)’를 발족하고 총재가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종단 종령 기구로서 총무원은 22일 오전 총무원회의를 통해 종령을 확정했다. 운영 기간은 1년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스님 위원으로는 자승과세신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흥선(지지사 주지)·덕문(동화사 주지) 스님과 중앙총회의 원 지홍·범해·장명·법인·만당·해법 스님, 지현·일감·세영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실천승가회 집행위원 일문 스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해조 스님 등 15명이 위촉됐다.

재가 위원으로는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조성택 고려대 교수, 김동건 불교포럼 대표, 이항민 인드라마연구소장, 박재현 화쟁이카데미 사무국장, 정웅기 붓다로살자 연구위원,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위촉식 이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

는 공동위원장으로 도법 스님과 조성택 교수를 선출했으며, 총괄처장에는 정웅기 위원을 선임했다. 향후 사부대중위원회는 △과거사 정리 △94년 말빈 △종단개혁 계승 등 세 분과로 나뉘어 사안을 다루게 된다.

이를 통해 종단 현대사의 성찰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이하 사부대중위원회)를 발족하고 총재가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조계종은 9월 22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를 발족하고 총재가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출·재가 26명 위원 위촉
위원장 도법 스님·조성택
과거사·말빈·개혁 계승 등
1년 간 세 분과로 활동해

을 모색하며 당사자의 진정·제안 접수 창구도 1~2개월 한시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94년 말빈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적으로 94년 말빈자에 대한 조사 및 평가와 함께 대중공의와 중현질서에 입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종단 개혁 정신 계승을 위해서는

현대불교사에서 제시됐던 개혁안들을 정리하고 미래지향적 개혁 과제 도출을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부대중이 희망하는 백년대계와 주요 개혁 방향 등을 정리·발표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0년간 종단이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차이

와 입장 충돌로 남겨진 많은 상흔들은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 대중공사에서 다뤄졌던 서의현 前 총무원장에 대한 사안 역시 사부대중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나아가 94년 징계자들에게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 개혁의 정신을 잇는 것은 94년에 대한 회고가 아니라 그보다 먼 종단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중공사에서 함께 참구한 각종 미래상을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천년의 빛 ‘사리’
다시 석가탑 속으로

석가탑 사리 봉안기를 읽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모습. 경주 불국사 석가탑(삼층석탑, 국보 제21호) 사리와 봉안구가 9월 16일 다시 봉안됐다.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9월 16일 석가탑 사리장엄 봉안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봉안된 석가탑 사리는 지난 2012년 시작된 9월 경주 불국사 석가탑 해체보수사업으로 외부에 반출된 것이다. 봉안된 사리 28과 외 18과는 불국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개방형 이사 4명 모두 선임

21일 이사회… 김선근 종단 추천 이사, 개방형으로 선출

동국대가 교육부의 개방형 이사 4명 모두 선임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스님이 개방형 이사회를 열고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종단 추천 이사인 김선근 이사 사표를 수리, 다시 개방형 이사로 선출했다.

김선근 이사는 이사회 전인 9월 9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개방형 이사 추천위에서 김선근, 이항우 후보로 복수추천됐다. 교육부의 승인은 4일 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9월 21일까지 개방형 이사 4명을 총원하라고 동국대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동국대 이사회는 스님이 개방형 이사로 추천되는 등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의 분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관을 개정해 재가자가 개방형 이사로 선임되도록 했다.

이로서 동국대 이사회는 안재란, 이연택, 김선근, 김기유 이사의 4명으로 개방형 이사를 구성하게 됐다. 이사회에 참석한 김기유 신임 개

방이사는 “이사장임을 위하한 많은 이사들의 배려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인 이사회에 참여하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체 총괄 사장의 경력을 잘 활용하고, 이사님들을 잘 모셔 미래이나마 불교발전이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2월 3일 임기가 만료 예정이었던 영담 스님의 후임으로는 은해사 주지 돈담 스님이 선임됐다. 잔여임기 관계로 돈담 스님의 임기는 12월 4일부터 4년으로 결정됐다.

노덕현 기자

비구니 위상과 권익향상, 변화가 첫걸음입니다

핵심
과제

- ▶ 일하는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나겠습니다.
- ▶ 비구니승단의 위상과 권익을 위해 뛰겠습니다.
- ▶ 비구니스님의 노후복지를 성심껏 살피겠습니다.
- ▶ 비구니 승가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 ▶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로 승가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 투표일시 및 장소 : 불기 2559(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후보자 육문

